



슬로바키아 농가, 사상 가장 이른 보리·완두 수확 시작

(Slovak farmers embark on their earliest barley and pea harvests yet)

슬로바키아 남부 지역 농가들이 보리와 완두 작물의 수확을 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시작했다. 가뭄으로 인해 작물의 성숙이 빨라진 반면 수확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 농업식품 회의소는 겨울보리 수확이 지난주 다뉴브 저지대에 위치한 남서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통상적인 수확 시기보다 약 1.5~2주 빠른 수준이라고 밝혔다.

설명-강한 엘니뇨가 열대 농산물을 특히 취약하게 만드는 이유

(EXPLAINER-Why a strong El Niño leaves tropical commodities acutely exposed)

전 세계 기상 예보 기관들은 올해 하반기에 강한 엘니뇨 기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기온 상승, 강수 패턴 교란, 그리고 전 세계 농작물 생산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엘니뇨는 무역풍 약화로 인해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주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2~7년마다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9~12개월 동안 지속된다.

FranceAgriMer, EU 외 연질밀 수출 전망 유지...재고 전망 상향

(FranceAgriMer keeps non-EU soft wheat export forecast, lifts stocks)

프랑스 농업청 FranceAgriMer는 수요일 발표한 월간 전망에서 2025/26 시즌 프랑스의 EU 외 연질밀 수출 전망치를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한 반면 EU 역내 수출 전망은 상향 조정했다. 수급 전망 자료에서 FranceAgriMer는 EU 최대 밀 생산국인 프랑스의 연질밀 수출량을 725만 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2024/25 시즌 같은 시점의 수출량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은 규모이다.

알제리, 국제 입찰에서 제분용 밀 80만 톤 이상 구매

(Algeria buys over 800,000 tons milling wheat in tender, traders say)

유럽의 거래업자들에 따르면, 알제리 국영 곡물구매기관 OAIC가 수요일 마감된 국제 입찰을 통해 제분용 밀 80만 톤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구매 가격은 운임 포함 톤당 약 264~265달러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출처: Thomson Reuters